

“썰렁한 선거 분위기 살리자”...시민들이 투표 독려 나섰다

오늘·내일 이틀간 사전투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선거 당일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전남 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이 투표 독려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은 특히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총선 투표 독려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9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 열기와 관심이 떨어지면서 광주·전남 대학생, 시민단체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투표 참여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데다, 격전지로 꼽히는 선거구도 많지 않아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사전 투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총선 투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4년 전 치러졌던 20대 총선의 경우 광주·전남의 사전투표율(광주 15.75%, 전남 18.85%)이 높아 전체 투표율(광주 61.6%, 전남63.7%)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30일부터 매주 월·

코로나19로 투표율 저조 우려

광주·전남 학생·시민단체

카드뉴스·손편지 챌린지 호소

아이 때 사진 올리고 참여 독려

광천터미널 등서 피켓 홍보활동

청소년 모의투표운동도 개최

수·금요일 오전 8부터 한시간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전남대·조선대·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등 젊은층이 많은 광주지역 주요 장소를 찾아 투표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잊지말자 4·16(세월호) 투표하자 4·15’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며 정치 개혁을 위한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9일 오전 조선대입구에서 캠페인을 벌인 박찬우(26)씨는 “피켓을 들고 있으면 빵, 음료수 등을 건네주시는 시민들이 있어 힘이 난다”며 “코로나19사태로 선거에 관심없는 시민들이 자칫 투표장을 찾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만18세가 참여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청소년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 독려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YMCA를 중심으로 청소년 단체·시설 및 교육 단체들은 ‘4·15 광주청소년 참정권연대’를 구성,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도심 곳곳에 ‘4월 15일! 내생애 첫투표, 꼭! 하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청소년 유권자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청소년연대도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답변을 요구하는 등 정치 참여를 위한 활동 방안을 구상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투표 독려 캠페인은 온라인상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 서구지역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인 ‘마지널리티’는 인스타그램에 선거투표 독려 프로젝트 게시물을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 올리며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카드뉴스는 총선의 의미·국회의원 수, 투표 의미와 총선 투표율, 광주 서구지역 후보와 공약 비교 법등을 담았다.

광주아동옹호센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도 인스타그램에 유권자들의 어렸을 때 사진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어넣는 ‘유권자 챌린지’를 진행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광산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페이스북’에서 ‘손글씨 챌린지’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에 참



광주·전남 대학생들이 최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교차로에서 길거리 투표독려 캠페인(왼쪽)을 벌이고 있다. SNS상에서도 챌린지 형식(오른쪽) 등으로 투표 참여 독려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여하겠습니다’라는 문구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손으로 쓴 사진을 찍어 올리며 이어가는 형태다.

참여연대 등 전국단위 25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대기구로 구성된 ‘2020 총선넷’은

선거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투표참여를 권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glalalee94년 외 71명이 좋아합니다 sy...d [#voteforchild 챌린지]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대국을 위해 투표합니다!

나는 어린시절, 엄마, 아빠, 형이, 준이와 함께 여행가는 걸 정말 좋아했다

다음 세대에 또 그런 일상을 선물해주고 싶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번 투표에는 꼭! 아동을 위한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약속해줘 친구>><

광주 교회 507곳 부활절 예배 강행 방침 ‘초긴장’

전체 34% 주말 현장예배하기로

사회적 역할·책임 외면 지적

천주교 유튜브 미사와 대조

기독교 최대 행사인 부활절(12일)을 앞두고 광주지역 상당수 교회들이 예배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음에도, 주말 부활절 예배를 치르겠다는 교회 수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도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활절인 오는 12일 현장 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광주지

역 교회는 507곳으로, 광주 전체 교회(1451개)의 34%에 이르는데다, 1주일 전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205곳)의 2배가 넘는다.

정부와 광주시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주말 현장 예배를 진행했던 교회가 지난 3월 이후 256곳(3월 22일)→214곳(3월 29일)→205곳(4월 5일) 등으로 감소했던 것과도 상반된다.

광주동명교회와 광주겨자씨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강행하기로 했고 서구 광주무등교회도 지난 7주간 현장 예배를 중단했지만 이번 부활절 예배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다.

교회 관계자는 “부활절을 맞아 현장예배를 열자는 신도들 의견이 많았다”며 “신도 간 교제(대면 만남)도 종교 활동의 일부인

데 7주간 예배를 하지 않으면서 공화함을 호소하는 신도들도 많다”고 말했다.

광산군 빛과사랑교회도 예배를 열기로 했다. 다만, 목사·장로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할 계획이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 관계자는 “부활절 현장예배를 협의회에서 제재할 수 없다. 각 교회 목사님들이 판단 하에 정부가 제시한 준수사항만 지킨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의 경우 라디오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부활절 미사를 송출·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미사를 중단한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검찰, 약식명령 청구액보다 5배 많은 벌금 구형 왜?

아동음란물 소지 엄단 의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을 다시 정식재판에 넘기는가 하면, 약식명령 청구액보다 무려 5배가 많은 벌금을 구형했다. 법원과 벌리 해석을 달리한 데 따른 것이지만 재판 도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 텔레그램 공유방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등 장 음란물 소유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 등을 반영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8)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27일까지 B 씨에게 40만 원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 1180개를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애초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 약식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검찰은 뒤늦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으로 공소 유지를 맡았던 검사가 바뀐 이후 벌금을 1000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구형 의견서를 냈다.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1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취업제한 명령대상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에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음주운전 경찰 잇단 적발에 군청 직원들 회식하다 폭력까지

광주·전남 공직자들 잇단 일탈 ‘물의’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되는가 하면, 군청 공무원들이 모임 자체 요구에도 벼터이 부서 회식을 하다 시비돼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공직자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은 지난 8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도 위 표지판을 들이받고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A 경장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부경찰 소속 B 경감도 지난달 28일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지난 3월 22일 5개 경찰서장들과 화상 회의를 열면서 경찰관

개개인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 지침을 독려한 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특히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한 뒤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음주단속

이 허술해지는 틈을 타 경찰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경찰 뿐 아니다. 광주광산경찰은 8일 밤 광주시 광산구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 다른 사람과 시비돼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함평군 소속 공무원을 조사중이다. 해당 직원은 이날 공직사회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임·외출 자체에도 불구하고, 열린 부서 회식에 참여했다가 식당을 찾은 다른 남성과 시비돼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버스정류장 앞에서 있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과격하게 귀가를 종용하던 40대 취객이 겁에 질린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으나 무혐의 처리.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버스정류장 앞에 모여

있던 초등학교 5학년생 5명에게 “빨리 집으로 가라”며 허공에 발을 차자, 학생들이 곧바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에게 겁을 먹은 초등학생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도 다치지 않는 등 범죄 혐의 없이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